천년의 맛과 멋 전남
호남매일
ko930112@naver.com

호남매일

가성비 최고! 최저 가격 판촉물
여기요!! 판촉모아
NAVER 판촉모아

제5699호 2000년 7월 25일 창사 homae.co.kr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음력 3월 17일)

‘전파력 1000배’ 첫 돼지 구제역에 전남 비상

전남 사상 첫 발생…바이러스 배출량 최소 1000배
무안, 사육두수 1위…인근 4개 시·군도 양돈 밀집
항체율 98%, 무증상 감염…‘돌파 감염’ 가능성도

10여 차례에 걸친 한우 구제역에 이어 이번엔 소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소 1000배에 이르는 돼지 구제역까지 터져 전남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7년 만, 전남에서는 사상 첫 돼지 구제역인 데다 도내 사육두수 1위 무안에서 백신 접종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해 방역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무안 돼지 농장 2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농장은 지난달 15일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한우농장과 각각 1.8㎞, 1.5㎞ 떨어져 있다.

구제역 종식 선언을 앞두고 반경 10㎞ 방역대 내 해제 검사 중 두 농장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정밀검사 결과 12마리가 구제역에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영암 한우농장에서 14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후 19일 만이다. 국내 돼지 구제역은 2018년 4월 이후 꼬박 7년 만이다. 구제역이 첫 발생했던 1934년 이후 91년 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위를 유지해온 전남에서는 사상 첫 돼지 구제역이다.

방역 당국은 축종별 첫 발생농장인 만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중인 돼지 547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문제는 전파력과 발생장소다.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검출량이 최소 1000배, 많게는 3000배 가량 많아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발생지인 무안은 75개 양돈 농가에서 돼지 24만51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전남 전체 양돈 농가(480곳)의 15.8%, 사육 두수(138만6500마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두수만 놓고 보면 전남에서 가장 많고, 2위 나주(17만7295마리)보다 7만 마리 가량 많은 독보적 1위다.

무안과 맞닿은 나주, 영암, 함평, 목포, 신안 등 5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히면 양돈농가는 239농가로 전남 전체의 49.8%, 두수는 68만4600마리로, 49.4%에 이른다. “한 번 뚫리는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컸던 까닭이다.

더욱이 발생 농장의 경우 지난달 중순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축종별로 접점도 없는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발생 농장의 백신 항체 양성률이 98.4%에 달해 이른바 ‘돌파 감염’ 개연성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워낙 가벼워 공기 중 전파 사례가 많다”며 “최대한 방역대 안에 가둬두고 집중 소독 등으로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4월 중순께로 예상됐던 구제역 종식 선언은 빨라야 5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식선언은 마지막 살처분 시점으로부터 3주일이 지난 뒤 방역대 내 전수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주말과 휴일에 바람이 많이 불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행락철이 5월까지 이어지는 점도 주목, 구제역 종식 선언일까지 인근 시·군으로의 수평 감염 차단 등 고강도 방역에 올 인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매일 농장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무안 발생농장 3㎞ 방역대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은 3주간 연장했다.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진 구제역 심각 단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축산시장 개장도 보류키로 했다.

/김 호 기자

노란 리본, 어느덧 11년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 팽목기억관에서 추모객들이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란 리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박균택·싱크탱크 허민…이재명 대선캠프, 호남 역할론 주목

박균택·정준호 법률지원단장 활동…신정훈 의원, 지역서 첫 지지 선언

‘진짜 대한민국’을 내걸고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합류하거나 지지선언을 해 역할론이 주목된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경선캠프 인선을발표했다.

캠프 좌장인 선대위원장은 5선의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 3선 강훈식 의원, 공보단장 재선 박수현 의원, 종합상황실장 3선 한병도 의원, 정책본부장 4선 윤후덕 의원, 정무전략본부장 3선 김영진 의원, TV토론단장 재선 이소영 의원, 비서실장 재선 이해식 의원, 대변인 초선 강유정 의원 등이다.

발표된 명단에는 빠졌지만 경선캠프 내 법률지원단장에는 광주의 박균택 의원(광산갑·초선)과 정준호 의원(북구갑·초선)이 확정됐다.

광주고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한 박 의원은이 전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변론을 맡아왔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에서 사퇴하자 당직인 법률위원장을 사임하고 경선캠프에 합류했다.

초선인 정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당 원내대표단 부대표로 활동해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초선인 박 의원과 정 의원이 경선 캠프 인선 명단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것은 조직 슬림화와 본선 조직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에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린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이 전 대표 지지를 공개 선언하며 힘을 실었다.

신 의원은 “위기의 대한민국에 딱 맞는 구원투수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 밖에 없다. 지방의 가능성을 국가 중심에 세우는 이 전 대표와 함께 균형있는 국가 발전,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강기정 시장이 제안한 광주 인공지능(AI) 시범도시 패키지사업을 10조원 규모로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도 지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3주 남짓 짧은 경선기간 활동할 캠프 인선을 지역 홀대와 연결짓는 건 무리다”며 “지지층 외연 확대가 최대 과제인 시점에서 중도실용노선, 초계파 인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촬영 불허… “명백한 특혜” 비판

이명박·박근혜 땐 사안 중대성 고려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3면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광주시민 평생걷기 프로젝트 2면
윤석열 형사재판 시작 3면
벼랑끝 내수경제 4면